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1-01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1-01  
2020년 11월 01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32829353](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32829353)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

2020년 11월 01일

# 차례

1. [노사협력? 노오사아허업려억? ㅋㅋㅋ]	3
2. [WTO 도, '우리' WTO 대표도필요없다]	3
3. [잡새는잡새다]	4

## 1. [노사협력? 노오사아허업려억? ㅋㅋㅋ]

문재인대통령이현대자동차울산공장을찾아코로나위기에대응한'노사상생'을극찬했다고한다. 코로나초기부터노사가힘을합쳐사내에방활동은물론지역사회, 부품협력업체도지원하는공동활동에나섰다는것이그이유다. 그러면서현대차노동조합이'분규없이', '임금을동결'시키는'통큰'합의를했다고도치하하시었다.

하지만이러한결과물은결국비정규직노동자들을갈아넣은결과가아니던가? 지난 2 월 28 일, 현대차에서코로나 19 확진자가발생하자정규직에게는마스크가지급되고선별진료와퇴근조치가이루어졌다. 하지만비정규직은마스크가지급되지않거나, 하청업체로부터비웃음을당하듯'방한대'를지급받았다. 선별진료를받지도못했다. 어느작업장에서확진자가나왔는지조차알수없었다.

2 월 25 일, 현대차노사가'코로나 19 관련특별합의'를통해마스크 10 만개를확보하고사내확진자발생시 KF94 마스크를지급하겠다는합의를한지사흘만의일이었다.

문대통령이이러한일을알았는지몰랐는지는모르겠다. 아니, 관심이없다. 알고서현대차를칭찬했다면그는그야말로반反노동의화신일것이고, 몰랐다면직무유기일것이니어느쪽이든분노를피해가기는어려울것이다. 대대를위해서는소소를희생해야하는가? 그렇다면문겠다. 어차피희생되어야할소는무엇하러나를지킬의지도없고능력도없는국가에충성해야하는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25690>

<https://cm.lawissue.co.kr/view.php?ud=202003041357124>

## 2. [WTO 도, '우리' WTO 대표도필요없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의선출과정이자마지막단계에접어든가운데나이지리아의응고지오콘조-이웰라후보와한국의유명회후보가총장자리를놓고경쟁을벌이고있다. 전반적으로이웰라후보가앞서는가운데미국이유명회후보를지지하며경쟁을이어가는모양새다. 정부나후자는자국의이익이나위상을위해유명회후보가'우리'대표로서선출되기를바라지만 WTO 가어떤기관이던가?

WTO 는만들어진이래로자유무역이라는기치아래신자유주의를확산시켜개발도상국들의시장개방을압박하며경제식민지화에앞장섰던서구제국주의열강들의신식민주의기관이다. WTO 는철저하게다국적

기업, 특히미국계기업의이윤을보호하는기구로서다국적기업이그들의 이윤을추구할수있도록다국민중을착취하기용이한환경과체도를도입 시키는데중사하였다. WTO 에의해개방된시장의결과로보조금과기술 력의차이에서선진국과경쟁할수없었던개도국경제부문, 특히농업부문 은무너져갔고미개발산업구조상거기에중사하고있던다수의빈자와소 농들도한국빈상태에빠졌다. 이과정에서지적재산권이라는미명아래악 명높은문산도는살아남은이들에게마저종자값까지갈취해가며마지막 한톨까지착취해갈수있게해왔던것이 WTO 의일이다. 한국도그예외는 아니며 WTO 출범이래농산물시장개방을계속압박받아왔으며, 오직쌀 만이관세를통해그나마보존되어왔으나 TQR(쌀저울할당관세) 등으로 이마저도위협받는중이다.

WTO 는그들의주장처럼만인의이익을위한자유무역기구가아닌가 진자의착취를위한국제착취기구에불과하며개혁의대상도, 친목의대상 도아닌타파되어야할대상이다. 이번총장을둘러싼경쟁은그저착취할과 이를둘러싼자본간의탐욕스런경쟁일뿐인데누가대표가되든민중에게 무슨이익이있겠는가? WTO 도, '우리' WTO 대표도필요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 3. [짹새는짹새다]

내년부터경찰이 1 차수사권, 수사종결권을가지게되었다. 경찰은이 를계기로그간검찰과의권력게임에서한스코어를따냈다고여기는모양 이다.

하지만김창룡경찰청장이스스로도이야기했듯, 수사의대상이되어 야하는이들에게는수사권이누구에게있든중요한문제가아니다. 김청장 의말따나' 수사를받을때권리를제대로보장하고수궁할만한결과를받 을수있도록책임을다' 하는자세가억울한일을막을수있는그나마의최소 한이라할것이다.

하지만경찰이든검찰이든이러한것에진정관심이있기는한것인가? 수사권이경찰에게 옮겨왔다고해서그들이투쟁하는노동자들을기소의 견으로송치하지않게될것이며자본가들을성실히잡아넣을것인가?

짹새는짹새다. 수사권이있는짹새든없는짹새든짹새는짹새다. 위상 은수사권운운이아니라공권력이스스로제위상을버리고억울한이가없 게하기위해최선을다할때비로소높아지는것이다. 경찰은검찰에게엿을 먹었다고의기양양해하지말고스스로그것을어떻게그나마올바르게사 용할수있을지에대해무겁게고민해야할때일것이다.